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 ‘마스크착용 캠페인·노래 봉사 펼쳐’

토요시장서 마스크 무료 배부·캠페인 활동

“노래 봉사로 활력과 행복 안겨 주고 싶어”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 김용만 회장은 최근 장흥 토요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 및 마스크 무료 배부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전남 장애인종합복지

관 장흥분관을 방문해 노래 봉사 활동을 펼쳐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김용만 연예예술인협회 회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장애인분들에게 노래 봉사로 잠시나마 활력과 행복을 안겨 주고 싶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예예술인협회 사람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는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봉사 활동을 선

보이며 최고의 사회봉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는 지난 5월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11월에 장흥 관내의 3개 읍면에서 ‘코로나 극복 힘내라! 장흥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장흥군에 힘을 보탠 바가 있다. 장흥군 연예예술인협회는 사회 각층의 인사들과 연예·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광주보훈요양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식 시행

치매파트너즈 양성교육·치매인식 개선교육 등 인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 광주보훈요양원(원장 고

숙)은 지난 22일 광산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식을 시행하였다. 광주보훈요양원은 그동안 적극적인 치매파트너즈 양성교육 및 치매인식 개선교육등을 인정받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광주보훈요양원과 광산구치매안심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무안군, 수급자 중심 맞춤형 주거수선 지원

54가구 수선완료...주거환경 개선 수급자 만족도 향상

무안군은 2020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에 5억 7000만원을 투입해 54가구(경보수17, 중보수6, 대보수31)의 수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대상자를 차등 선정하여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 중보

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수선을 지원하는 현물 급여사업이다.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각 3년, 5년, 7년이며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 2월 LH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방문조사와 주거 수선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김산 군수는 “주거수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가 많다”며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광주 동구 ‘집수리 아카데미 봉사단’, 집수리 봉사

광주 동구는 평생학습 ‘집수리 아카데미 봉사단’이 추운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수리 봉사자들은 지난 18일 오랜 지병으로 누워있는 계림동 A씨 가정을 찾아 주택 내부 곰팡이를 제거하고 단열재 설치와

낡은 싱크대 교체, 지붕 누수처리 등의 재능기부를 펼쳤다. 집수리아카데미 봉사단은 을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40명으로 꾸려졌으며 수료자들끼리 의기투합해 지역에 재능기부를 실천하고자 시작한 모임이다. 기동취재본부

임택 동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이 추운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집수리아카데미 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고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동구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힘써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영암군 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영암군은 최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암군 약사회가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사용 지도, 생명지킴이 교육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생명지킴이로 함께 동참한 약사회는 자살위험 대상자를 발견하면 센터에 연계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영암군보건소는 영암군약사회와 협약을 통해 “약국이 취약계층과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곳이기

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 연계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문화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